

알기 쉬운 응급처치법



>>차멀미

차멀미는 시각과 평형감각(속귀에 있는 삼반구 관)과의 불일치나 기분적인 일로서도 일어나지만 멀미를 하기 쉬운 체질, 환경도 있다. 취하기 쉬운 사람은 미리 멀미약을 먹거나 봉지를 준비해 둔다. 또 몸을 꼭 죄는 복장이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멀미를 하기 쉽다. 몸의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 처치법

- ① 기분을 편안하게 돌려준다. 책이나 뜨개질은 안 된다.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먼 곳을 바라다보는 것이 좋다. 배를 탔을 경우 수평선을 바라보도록 한다. 멀미가 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 버스인 경우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 ② 벨트나 단추 등 몸을 꼭 죄는 것을 느슨하게 늦춘다.
- ③ 그래도 안 되거든 차에서 내려서 쉬도록 한다.
- ④ 토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경우는 무리하지 말고 비닐봉지에 토하도록 한다. 누가 토하면 따라서 토하는 사람도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위에 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⑤ 토해 버렸으면 입을 행구든지 해서 기분을 바꾸어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감전-낙뢰사고

전기 감전이 안 되게 모든 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전기기구나 전깃줄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전기기구들은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어린이가 전기 감전이 되었을 때는 바로 만지면 안 된다.
2. 플러그, 퓨즈상자에서 전기를 빨리 단절시켜야 한다.
3. 전기를 단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잘 마른 막대를 사용하여 전기로부터 어린이를 떼어 놓는다.
4. 바로 응급 구조 요청을 하고 호흡 여부를 확인한다. 숨이 약하거나 멈췄을 때는 기도를 열어 주되 수초 후에도 호흡을 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해야 한다.
5.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린이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혀 놓는다.



감전되면 전압, 전류의 강도에 비례해서 사망률이 높아진다.

(고전압의 경우는 몸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고전류와 접촉하면 일시적으로 신체가 마비되어 빨리 들어가는 듯하여 심장이 멎는 경우도 있어 위험이 더욱 커진다.)

특히 낙뢰는 전압과 전류가 모두 높고 격렬한 쇼크를 수반하여 위험하다.

필요한 처치를 하는 한편으로 구급차를 부르거나 해서 한시 바빠 구급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처치법

- ① 먼저 전원을 끊어 준다.
옥외 같은 곳이어서 전원을 좀처럼 끊을 수 없을 경우는 구조자가 감전을 방지하는 몸차림(고무장갑, 고무장화, 마른 면양말 등을 착용하고 마른 나무판자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나무 막대기 등 전류가 통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서 전선 등을 감전된 사람에게서 떼어 낸다.
- ② 전원에서 떼어 내면 조용히 눕힐 수 있는(낙뢰의 경우는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③ 구조해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유무를 살핀다.
- ④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병행해서 심장 마사지를 한다.
- 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감전 후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떨고 있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한다. 등산과 같이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낙뢰사고를 입었을 경우라도 결코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준다.
- ⑥ 또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진해 보여도, 감전으로 인해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출처 : 메드서티)